

윤주산만타키 폭포

윤주산만타키 폭포는 기쿠치 계곡의 긴 산책로에서 방문자 센터로 돌아가기 전, 마지막 주요 폭포다. 크고 작은 여러 폭포가 연이어져 하루에 흐르는 평균 수량이 43 만 석(7 만 8 천 톤)인 데서 ‘윤주산만’(‘43 만’이라는 의미)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.

강에는 돌출된 바위들이 있어 폭포 중간까지 걸어서 들어갈 수 있으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 윤주산만타키 폭포 부근의 산 표면에는 서늘한 기후가 필요한 전나무와 비자나무 등의 침엽수가 자라고 있는데, 이들은 따뜻한 계곡의 하류 지역에는 없는 나무들이다.